"오월 광주!…KIA 힘내야지"

■ 금주의 프로야구

"타선이 살아나니 이제 마운드가 걱정이네"

올 시즌 들어 KIA 타이거즈 서정환 감독의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

마운드가 살아나면 타선이 침묵하고, 타선이 살아나면 마운드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시즌 초반 침묵하던 KIA 의 방망이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상승무드를 타나 싶더니 이젠 최강의 원투 펀치를 자랑하던 김진우-그레이 싱어의 선발 마운드가 흔들리고 있다.

'스나이퍼' 장성호(0.257)는 지난 14일 7호 홈런을 터트리며 홈런 더비 단독 1위로 올랐고 최근 5경기 타율은 0.389(3홈런)에 이른다.

〈장 성 호〉

타선 회복세 불구 마운드 불안

올 시즌 타율이 0.227에 불과한 김상훈도 최근 5경기에서 0.500의 타율을 보이고 있고 손지환(0.256)도 0.438의 타율을 기록하며 타선의 집중력이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시즌 초반 잘 던지던 그레이 싱어는 지난달 30일 삼성전 5이닝 5자책점, 지난 5일 한화전 2이닝 2자책점으로 2경기 연속 패전투수가 됐다. 지난 11일 SK전에서는 5이닝 4자책점으로 무너졌으나 팀 타선의 도움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김진우도 지난 2일 두산전 7이닝 5자책점, 7일 한화전 7이닝 2자책점으로 패전투수가 됐고 지난 12일 삼성전은 4.1이닝 6자책점을 기록, 팀 승리로 승패없이 마감해 불안감을 던져 주고 있다.

KIA는 이번주 초 단독 1위에 랭크된 강적 현대와 3연전을 갖고, 주말에는 5연패를 기록중인 LG와 3연전을 갖는다. 다행인 것은 6연전 모두 광주 홈경기다.

KIA가 상승세를 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번 주초 현대 3연전이 고비다.

현대는 전준호-손승락-장원삼-캘러웨이로 연결되는 최강 선발진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KIA도 이에맞서 그레이 싱어-김진우 등 에이스들을 내세울 태세지만 그리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다.

KIA의 방망이 못지 않게 현대의 방망이가 매섭기 때문이다.

현대는 이택근-이숭용-송지만-정성훈-채종국 등 상·하위 타선 모두 뛰어난 집중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택근-이숭용-채종국은 최근 5경기에서 4할대의 방망이를 뽐내고 있다.

그마나 최근 5연패의 늪에 빠져 7위로 내려앉은 LG와의 주말 3연전은 다소 안심이 된다.

박용택(0.321)을 제외하곤 공격력이 달리고, 이병규(0.287)도 최근 5경기 타율이 0.227로 부진하다.

주말 LG전 승수쌓기 기회

마운드도 흔들거린다. 게다가 무등산 호랑이가 유독 강한 날인 광주 민중항쟁 기념일인 5월18일(역대 12승 4패 1무, 승률 0.750)에 게임이 열려 확률적으로도 승수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이번주 KIA가 타선과 마운드의 엇박자를 어떻게 다스리며 승수를 챙길지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프로야구 중간순위 (15일현재)

순위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현대	19	10	0	0.655	-	4승
2	한화	18	10	1	0.643	0.5	3승
3	S K	17	12	0	0.586	2.0	2승
4	삼성	16	12	1	0.571	2.5	1패
5	**KIA**	**14**	**13**	**1**	**0.519**	**4.0**	**1승**
6	두산	10	16	2	0.385	7.5	2패
7	L G	10	19	1	0.345	9.0	5패
8	롯데	8	20	0	0.286	10.5	3패

거침없는 질주 15일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린 GP리오 아트레티시모 육상대회 여자 100m허들경기에서 브라질의 마리아 파울라 마카도가 힘차게 허들을 넘고 있다. /AP연합뉴스

한희원 공동 2위

미켈롭 울트라오픈 최종

'여자 백상어' 카리 웹(호주)이 시즌 2승을 거두며 완벽한 부활을 알렸고 '미시골퍼' 한희원(28·휠라코리아·사진)이 올들어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거뒀다.

한희원은 15일(한국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킹스밀의 킹스밀골프장(파71·6천306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미켈롭 울트라오픈 마지막 라운드에서 1언더파 70타를 쳐 최종 합계 7언더파 277타로 공동 2위에 올랐다.

플로리다스내추럴 채리티챔피언십과 진스클럽스 앤드 리조트오픈에서 잇따라 5위에 올랐던 한희원은 이로써 최근 3개 대회 연속 '톱 5'에 들어 상승세를 탔다.

또 김미현(29·KTF)과 장정(26·기업은행)이 합계 4언더파 280타로 공동 7위, 이지영(21·하이마트), 안시현(22), 김주미(22·하이트맥주)가 나란히 공동 10위(3언더파 281타)를 차지하는 등 한국선수 6명이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김미현은 특히 2003년 대회 창설 이후 4년 동안 한 번도 '톱 10' 밖으로 밀려나지 않는 끈질김을 과시했다.

1언더파 70타를 친 웹은 나흘 연속 언더파 행진을 벌인 끝에 합계 14언더파 270타로 한희원,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등 2위그룹을 무려 7타차로 따돌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최경주 26위 부진

EDS바이런넬슨챔피언십 최종

브렛 웨트릭(미국)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데뷔 8년만에 감격의 첫 우승컵을 안았다.

웨트릭은 15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어빙의 포시즌스TPC(파70·7천22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EDS바이런넬슨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68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2언더파 268타로 우승했다.

이날 웨트릭이 받은 우승 상금 116만달러는 지금까지 80차례 대회에서 모은 통산 상금 130만달러와 거의 맞먹는 액수.

'톱10' 진입을 바라보던 최경주(36·나이키골프)는 1오버파 71타를 쳐 합계 3언더파 277타로 공동26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드라이브샷이 흔들린 최경주는 특히 17번홀(파3)과 18번홀(파4) 등 막판 2개홀에서 잇따라 보기를 기록한 것이 아쉬웠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서재응, 잘 던졌는데…

구원투수 난조 2승 또 실패

'컨트롤 아티스트' 서재응(29·LA 다저스)이 면도날 제구력을 앞세워 올 시즌 가장 좋은 투구를 선보였으나 구원 투수의 난조로 2승 달성을 다음 기회로 미뤘다.

서재응은 15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AT&T 파크에서 벌어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방문경기에 선발 등판, 6이닝 동안 3피안타 1실점의 호투를 펼친 뒤 팀이 2-1로 앞선 7회부터 마운드를 좌완 오달리스 페레스에게 넘겨줬다.

그러나 페레스가 곧바로 페드로 펠리스에게 2루타를 맞고 마이크 매서니에게 동점 적시타를 허용, 서재응의 승리를 날려버렸다.

다저스가 8회 볼넷과 상대 실책, 노마 가르시아파라의 적시타 등을 묶어 대거 3점을 얻고 6-3으로 승리한 덕분에 어이없게도 승리는 페레스에게 돌아갔다.

15일 열린 미국 프로야구 LA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LA 다저스의 투수 서재응이 1회말 자이언츠 오마르의 타구를 잡아 아웃시키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샌디에이고전에서 마수걸이 승을 따냈던 서재응은 이날까지 3경기 연속 무승에 그치는 불운에 빠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유제국 1이닝 1실점

빅리그 첫 등판서

한국인 12번째 메이저리거인 시카고 컵스의 우완투수 유제국(23)이 빅리그 생애 첫 등판에서 1이닝 동안 사사구 3개로 1실점했다.

유제국은 15일(한국시간) 시카고 리글리필드에서 벌어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홈경기에서 팀이 0-8로 크게 뒤진 8회 4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다. 그는 첫 타자 애드리언 곤살레스에게 좌전 안타를 맞은 뒤 투수 클레이 헨슬리, 베테랑 에릭 영을 삼진으로 돌려 세우며 위기를 넘기는 듯 했다.

그러나 마이크 캐머런과 브라이언 자일스를 각각 몸에 맞는 볼과 볼넷으로 내보내며 2사 만루를 자초한 유제국은 후속 조시 바드를 다시 볼넷으로 출루시켜 1실점했다.

스포츠중계

16일(화)

▲메이저리그〈샌디에이고-애리조나〉(10 : 30·Xports)

▲월드컵 출전국 평가전〈잉글랜드-우루과이〉(12 : 50·MBC)

▲코리안리그 전국실업핸드볼 대회(13 : 00·KBS SKY SPORTS)

▲프로야구 〈삼성-두산〉 (18 : 30·MBC ESPN), 〈롯데-LG〉 (18 : 00·KBS SKY SPORTS), 〈SK-한화〉 (21 : 30·SBS스포츠)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소프트뱅크〉(19 : 50·SBS스포츠)